

44장. 성전 동문과 여호와의 영광

1. 닫아 둔 동쪽 문(44:1-3)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혔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동쪽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전에 동쪽 문으로 나가셨는데 다시 그 문으로 돌아오고 그 문을 닫음으로써 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왕이 이 길을 다녔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 길로 올 것이라고 하였다.

2. 성전 봉사에 대한 지시 (44:4-8)

에스겔이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들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물에 대한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두어서 직분을 행하게 한 것을 책망 하셨다.

3. 레위 사람과 제사장 직분

1) 레위 사람의 봉사 (44:9-14)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릇 행하여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죄악과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그들은 지성물에는 가까이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키거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일은 할 것이다.

2) 제사장의 봉사 (44:15-31)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할 때에 사독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소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와 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제사장은 가는 베옷을 입고 베 관을 쓰고 베 바지를 입도록 하였다. 바깥으로 나아갈 때에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였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거나 길게 자라게 하지 않아야 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와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레 11:10; 신 14:3-21).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율례대로 재판의 일을 하고, 시체와 같은 것을 멀리하도록 하였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였다.

제사장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44:28). 제물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림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손대는 일은 피하여야 하였다.